



강진 김명일



고흥 한운섭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여수 김석철

영광군, 전남 어촌지역

상호협력 · 상생발전 모색

어촌 환경변화 대응 위해 12개 지자체 간담회



영광군은 지난 7일 전남 어촌지역 상호협력력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전남 어촌지역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어촌의

발전 방안 정책 반영, 수산업에 포함한 다양한 지역산업 육성,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등 다양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상호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특히 (가칭)전남어촌지역군수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전제로 신우철 안도군수가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기후변화 주요 리스크(태풍, 폭우, 적조, 이상수위, 고수온) 대응을 위한 3대 전략방향 조안으로서 '종묘·재묘시기 재규명 및 안정화', '신기술 도입 및 양식 전략품종 개발', '스마트·자동화 기술 집적'이 제시 되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이번 간담회는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어촌지역의 소득 감소, 고령화 및 후계자 부족과 같은 노동력 문제를 안고 있는 현 시점을 비추어 볼 때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전남 어촌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한 사업 근거 마련 및 공동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보성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 점검 나서



정정 축산 보성군은 중국·동남아·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방역을 위한 양돈 농가 일제 점검에 나섰다.

군은 지난 4일 농장출입구에 차단방역을 위한 생석회 살포 및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교육도 병행 실시했다.

또한,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베트남·캄보디아·태국어 등 다국어로 만들어진 교육 홍보물로 이해를 도왔으며, 발생국 여행 후 휴대용 축산물 반입금지 및 축산물 택배 반입금지 등 ASF 차단방역 준수 사항을 반드시 지키도록 당부했다.

교육에 참석한 통라타(캄보디아)는 "캄보디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옮기지 않기 위해 고향을 방문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차단방역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성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해 양돈농가에 10여 톤의 축사 소독약과 방역증강제 등을 지원하였으며, 농가 전담관 21명을 지정하여 주1회 이상 차단방역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료제와 예방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질병으로 감염된 돼지가 가열되지 않은 돼지고기, 훈제고기 등 축산물을 통해 전파될 수 있어 축산물의 국내 반입이 금지되었으며 불법으로 축산물을 반입하는 경우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보성=안구일 기자

구례군, 정원관리사 양성 교육생 모집

구례군은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원관리사 양성교육'에 참여할 교육생 2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원관리사 교육 과정은 지난해 제정된 '전라남도 정원·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됐다.

구례군 지리산정원관리사업소는 지난 3일 정원관리사 양성기관으

로 지정받았으며,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원에 관한 기초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추진한다.

교육과정은 정원 식물관리와 정원 설계 및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이론 24시간과 실습 36시간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총 12주 동안 매주 토요일에 진행된다.

정원관리사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전라남도 정원관리사' 인증서

가 수여된다. 교육신청은 10일까지이며 구례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원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전액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양성교육이 수지는 국가정원, 지방정원 및 휴양시설 등에서 정원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정원문화 확산에 선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광양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

광양시는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지역일자리 공시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3일 서울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국무총리, 고용노동부장관, 수상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일자리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은 고용노동부가 주관으로 2018년 자치단체별 일자리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는 행사이다.

광양시는 1차 서류 및 대면평가, 2차 대면 및 질의응답 평가로 2차례에 걸쳐 엄격한 절차를 통해 지역 일자리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으며, 1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시는 전남에서 유일하게 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9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수

요를 조사해 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인력 262명을 양성한 것에 대해 큰 주목을 받았다.

신중년의 직무분석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은퇴자 대체인력뱅크 운영 등도 심사위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인센티브로 받은 1억 원은 신규 일자리사업에 재투자해 지역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광양=김승호 기자

순천시, '전남 동부권 5개 시·군 연합 청렴콘서트' 개최



순천시는 최근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청렴의 가치와 문화공연을 접목한 '전남 동부권 5개 시·군 연합 청렴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청렴콘서트는 예로부터 청렴의 역사와 문화인 팔마비가 있는 순천시에서 '2019년 순천 방안의 해'를 맞아 개최됐다.

콘서트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청렴콘서트팀을 초청해 전남 동부권 지역 5개 시·군(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과 순천교육지원청, 호남지방병영청 순천사무소 소속 공직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통해 청렴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실천 의지를 함양하기 위해 별주부전을 현대적 청렴의미로 재해석한 판소리 마당이 진행됐

다. 공직자들의 하위직을 상향극으로 표현한 연극공연, 청렴을 주제로 한 샌드아트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렴콘서트가 구성됐다. 김병주 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은 공직자의 의무이자 자긍심이며, 시민들의 행복이다"면서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직자인 나부터, 우리부터 청렴 실천에 솔선수범하자"고 당부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함평군, 2019 식품안전관리 사업 평가우수기관 선정

함평군이 2019 식품안전관리사업 평가에서 기초단체부문 우수기관에 선정, 기관표창과 함께 200만 원의 상금을 수상했다.

식품안전관리사업 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매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분야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함평군이 속한 기초단체부문은 총 226개 피평가기관 중 상위 11개 시·군에만 기관표창이 진수된다.

올해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리 인력, 프락, 기초 위생관리, 정부 주요 시책 분야 등 총 11개의 세부추진사항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군은 위생식품 회수업체 점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 활동 중시자 교육 등 그동안 중점 추진해왔던 위생관리시책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등 지역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한 '깨끗한 환경·음식·복합 갖추기' 3대 청결운동과 배달음식 전문점 등 소규모 음식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등급제 적용 등도 호평을 받았다.

함평=김광훈 기자

순천시, 도시 브랜드 슬로건 공모

순천시는 오는 21일까지 순천의 현재와 미래를 담은 통합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공모한다.

시는 시 승격 70주년을 맞는 올해 통합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해 시민 의견수렴과 이를 바탕으로 브랜드 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번 슬로건 공모는 생태와 정원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순천의 현재와 미래를 표현한 통합 브랜드를 개

발을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슬로건은 그간 시민 참여 워크숍, 설문조사 등을 통해 뽑은 '생태, 살고 싶은, 여유'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순천의 이미지와 자부심을 표현할 수 있는 간결하고 함축적인 문장으로 만들면 된다.

개인당 2개의 슬로건까지 출품이 가능하며, 시 홈페이지, 밴드, 페이스북, 팹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

다. 접수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평가해 대상 1명에게 50만원, 우수상 3명에게 20만원, 장려상 14명에게 1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이라는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담아 시민들의 자긍심과 세계적 생태도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브랜드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공모전에 생태도시 순천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